

# 건강하십시오



## “살아있는 건강정보를 전해드립니다”

KBS 1 라디오 “건강 365일” 진행자 유혜선 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정형 PD의 수신호가 떨어지자 음악이 흐르면서, 경쾌하고도 지적인 목소리로 유혜선씨가 서두를 꺼낸다. 그녀의 목소리 만으로도 ‘건강’을 연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KBS 1 라디오의 ‘건강365일’이다.

매일 아침 10시 5분부터 10시 5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건강365일’은 서정형 PD, 작가 지계정씨, 진행자 유혜선씨가 환상의 콤비를 이루며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알토란같은 건강정보 프로그램.

‘건강365일’의 가치는 12년이라는 방송기간 만으로도 짐작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면서 이 프로그램에 귀를 기울이는 애청자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지 2년 되었는데, 이젠 건강정보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은 전문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저나 가족의 건강에도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더군요. 하루에 한번 그것도 3~4시간은 건강에 관해 생각해야 하니까 자연히 건강을 돌

보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딱 것은 몰라도 건강 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있어요.”

유혜선씨의 말이 아니더라도 그녀는, 대학 3학년짜리 큰 아들들 비롯해 모두 3명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젊고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다.

물론 이 프로그램을 맡기 전부터 헬스나 수영을 해왔고 규칙적인 생활에 누구보다 신경을 썼던 것이 그녀이기에, 어쩌면 유씨가 ‘건강365일’을 통해 살아있는 건강정보를 전달하게 된 것은 필연적 결과인지

도 모른다.

'73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결혼과 함께 잠시 직장을 떠났던 그녀는 '80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TV 프로그램 여성백과, 엄마의 방, 라디오 프로그램 여성응접실, 한밤에 만난 사람, 그리고 건강 365일이 그녀와 함께 했던 프로그램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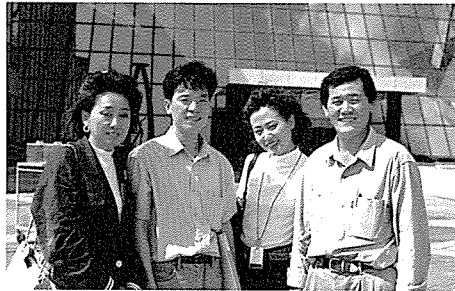
“‘건강365일’은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건강관련 정보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주 관심사인 성인병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 음식, 레저, 한약, 양약 등에 대한 정보, 전문 Clinic 소개, 각종 질환에 대한 건강상담, 건강협회와 매월 개최하는 공개강좌 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매일 전문가가 출연해서 기왕이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고 상담도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365일’ 팀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월 전문 의료기관과 함께 떠나는 『건강사회를 위한 연중기획 - “건강한 사회 따뜻한 이웃”』, 지난 5월부터 월 1회씩 종합병원 의료진과 함께 낙후 지역을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펼치는 기획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에 목포의 암태도를 다녀왔어요. 주민이 5천명은 된다는데 병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특집 생방송을 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어요. 특히 85세 되신 할머니께서 백내장이셨는



▲ ‘건강 365일’을 진행하고 있는 유혜선씨



▲ ‘건강 365일 제작팀’ 왼쪽부터 유혜선씨, 서정현 PD, 지계정 작가, 한창환 차장

데 치료를 받지 못해 안타까워하다가, 그때 참석했던 안과 선생님께 생방송으로 도와드릴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서 무료 수술을 약속받았을 땐 정말 감격스러웠고, 또 보람도 느꼈죠. 그 할머니는 결국 후에 정음병원에서 무료로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지내신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유혜선씨는 단순히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맡은 방송에 대한 열의,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과 친근감, 이런 것들은 그녀의 오랜 경력에서 오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본래의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아

마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유씨는,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고 한다. 가능한 한 정확하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누가 들

어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방송인으로서의 책임감도 느낀다고 한다.

앞으로 미래의학과 암·AIDS·장기이식 등에 관한 살아있는 정보, 질병의 예방과 건강상담 등을 주 내용으로 현장을 찾아 움직이겠다는 서PD, 지계정 작가, 그리고 책임감있는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유혜선씨의 의기투합. 그 덕분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많은 건강정보를 ‘건강 365일’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오전 10시 5분, FM 97.3, AM 711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금방 잡은 생선처럼 싱싱한 건강정보를 낚을 수 있다. **Z**